

ㄱ자 안채·ㄴ자 안마당 ... 중부지방 전형적 상류층 가옥



〈49〉 충남 아산 윤보선 생가

1920년대 건축...윤보선 전 대통령 10세까지 거주
1984년 12월 24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안채, 큰 부엌·작은 부엌이 양 날개에 있어 특이
행랑채 서쪽 부속채, 동부서만 분포하는 ‘양통집’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전형적 상류 주택

윤일선·윤승구·윤제형·박우현 가옥도 지척
조선시대 양반 생활상 보여줘 충남 ‘민속문화유산’

2024년 12월 3일 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임기 절반도 도래하지 않은 가운데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꺼내 든 대통령은 현재 수인번호 3617, 잉여의 몸 신세다. 최고 권력자에서 수감자로의 몰락은 누군가에게 기회의 장도 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실권한 두 번째 대통령이 나오며 치러진 지난해 장미대선에서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개막한 웅산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말 청와대로 복귀를 단행했다.

다시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업무와 일상 공간이 된 ‘청와대’는 또 한 명 대통령과도 역사가 깊다. 청와대라는 명칭은 윤보선 4대 대통령이 처음 공식 사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던 대통령 관저 명칭을 1960년 청와대로 바꿨다. 청와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이 계절,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는 청와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삶이 깃든 생가와 고택들이 있다.

◇윤보선 대통령 삶과 생가

윤보선 전 대통령은 신항리 입향조(마을에 들어와 터를 잡은 선조)로 전해지는 윤취동의 증손자이다. 윤영려의 손자, 윤치소의 6남 3녀 중 장남으로 1897년 8월 2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큰새마을에서 태어났다. 생가에서 10세까지 지냈다. 이후 1906년 서울의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후 진고개의 일출소학교에 편입해 2년 후 졸업했다.

1912년 게이오와 세이소 학교에서 공부했다. 중국의 신해혁명에 자극받아 독립운동에 참여할 뜻을 품고 1916년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상해에서 대한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신규식·이시영 등의 권유로 영국 유학을 결심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고고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32년 귀국했다. 광복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이승만 정부에도 몸 담았지만 이른바 ‘사사오입 발췌 개헌’ 이후 3·15 부정선거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이승만 정부와 대척점에 섰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한 뒤 들어선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뒤 군부세력과 갈등을 빚다가 1962년 3월 22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에 소재한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는 1984년 12월 24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생가는 넓은 평지 마을 한가운데에 동남향으로 자리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태어나 10여 살까지 지냈다. 생가는 해평 윤씨 오음공파의 자손들이



1 중부지방 전통 양반 가문의 가옥으로 파(巴)자형의 구조인 윤보선 생가. 2 ㄴ자형 구조의 안마당. 3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96호 윤보선 대통령 생가(입구와 사랑채).

모여 살았던 마을의 한 부분으로 네 개의 대문과 담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생가의 안채 안방에서 1897년 8월 26일에 태어났다.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 수 없지만 바깥사랑채는 건축 양식으로 보아 1920년대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ㄱ’자 모양의 안채와 ‘ㄴ’자 모양의 안사랑채가 ‘ㄱ’자 모양으로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안사랑채의 왼쪽 모서리에 ‘ㄴ’자 모양의 행랑채가 이어져 있다. 오른쪽 모서리에는 ‘ㄴ’자 모양의 바깥사랑채가 배치됐다. 안채는 큰 부엌과 작은 부엌 두 개가 양 날개에 있어 특이하다. 이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중부 지방의 평면구성을 보인다. 바깥사랑채는 높은 누마루 집으로 다른 건물과 별도로 담을 돌리고 대문을 내었다. 중문간은 일반적으로 밖에는 대문을 달고 안마당 쪽은 개방하는데 반해 생가는 양쪽 모두 대문을 달고 밖으로 여닫게 되어 있다. 행랑채는 안사랑채에 지붕을 아래로 한 단 겹치면서 잇대어 짓고 앞쪽으로 솟을대문을 내었다. 행랑채 서쪽에 있는 부속채는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만 분포하는 ‘양통집’이다.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후대에 부분적으로 개조했지만 중부 지방의 전형적인 가옥 성격을 띤 상류 주택이다.

◇윤일선·윤제형·윤승구 가옥 지척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는 충청남도 민속문화유산인 윤일선, 윤승구, 윤제형, 박우현 가옥과도 지척이다. 조선시대 양반집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윤일선 가옥은 해평윤씨 입향조로 알려진 윤취동의 둘째 아들 윤영려가 분가해 지은 집이라 전해진다. 가옥은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전통식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마당 중앙에 연못이 있다. 그 주변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와 종가택인 윤승구 가옥, 윤제형 가옥 등 해평윤씨 일가가 일곽을 이루 배치되어 있다. 일곽은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친 지역이나 같은 성질의 것이 모여서 이뤄진 구역을 뜻한다. 가옥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이다. 동남쪽에는 별채가 있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안채는 넓은 대청마루와 안방, 건넌방, 그리고 부엌으로 구성해 집 안쪽에 구획됐다. 반면 남성이 독서나 손님맞이를 할 때 주로 사용했던 사랑채는 사랑방과 사랑 대

청, 중문 등으로 구분됐다. 외부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가옥의 입구쪽에 있다.

윤승구 가옥은 윤취동이 조선 현종 10년(1844년)에 건립한 고택이다. 해평윤씨 집안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종가집으로 추측된다. 가옥은 ‘ㄱ’자형의 안채와 사랑채, 안채에서 따로 떨어진 광채가 ‘ㄴ’자 모양을 이루면서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이다. 사랑채 옆 동남쪽에는 ‘ㄴ’자 모양의 큰 별채인 아래채가 나란히 자리한다. 가옥 원편 2동의 광채는 후대에 건립됐다.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로 지어졌다. 종가택의 재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통 목조 건축물과 근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단면을 살필 수 있다.

특히 민가 건축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랑채의 기반을 규모가 크고 잘 다듬은 화강석을 2단으로 쌓았다. 앞면 3칸, 옆면 3칸에 흠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윤승구 가옥은 단아하면서도 품위가 넘치는 조선 시대 상류층의 주택 건축 양식과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산 지역 전통적 살림집 구조의 윤제형 가옥은 1900년경 윤경선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승구 가옥, 윤일선 가옥 등과 일곽을 이루 배치됐다. 가옥은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가 튼 ‘ㄱ’자형을 이루면서 북서쪽에는 아래채가, 남동쪽에는 광채가 있다. 사랑채와 광채 사이에 작은 협문을 두고 셋방을 쌓아 공간을 구분했다. 셋방은 집의 바깥을 둘러싼 담이 아니라 집 안에서 작은 가옥 사이사이에 쌓아 올린 담이다. 안채는 넓은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부엌, 건넌방을 들인 후 횃마루를 놓아 각 실을 서로 연결했다. 사랑채는 외부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가옥의 입구 쪽에 뒀다. 원편에 중문과 행랑채가 붙어 있다.

박우현 가옥은 원래 윤승구 가옥의 일부였으나 1970년대에 소유주가 박우현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광무 5년(1901년)에 처음 지었다. 문간채는 1972년, 안채 뒤편 창고는 1989년에 건립됐다. 가옥은 ‘ㄱ’자형의 안채, ‘ㄴ’자형의 문간채와 행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 ‘ㄱ’자 모양을 하고 있다. 윤승구 가옥의 일부였기 때문에 별도의 사랑채는 건축하지 않았다. 박우현 가옥에서는 기존의 한옥 구조에 근대의 건축 방식이 일부 접목된 양상을 볼 수 있다.

/대전일보=윤평호 기자



아산시 둔포면 해위길 52번길 29에 소재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모습. 조선시대 한옥에 유리한 붉은 벽돌을 사용한 근대기 가옥 형태다.